

3(2)
-
211

회의문자 ①



祀

제사 사

祀자는 '제사'나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祀자는 示(보일 시)자와 巳(뱀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巳자는 '뱀'이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어린아이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祀자를 보면 제단 앞에 巳자가 示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자손을 그린 것으로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이다. 참고로 은(殷)나라 때는 새해가 시작될 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祀자는 '해'나 '연'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祀

갑골문

祀

금문

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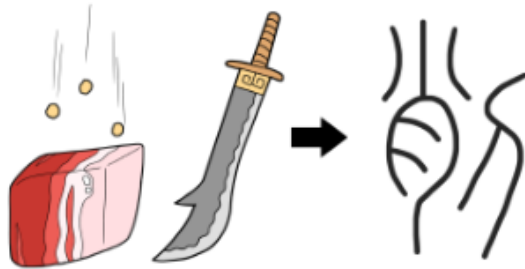
소전

祀

해서

3(2)
-
212

회의문자 ①



削

깎을 삭

削자는 '깎다'나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削자는 肖(닮을 초)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肖자는 小(작을 소)자에 肉(고기 육)자가 결합한 것으로 '육신이 닮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고기를 작게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削자는 이렇게 고기를 작게 다지는 것을 뜻하는 肖자에 刀자를 결합한 것으로 '칼(刀)로 고기(肉)를 작게(小) 다진다'는 의미에서 '깎다'를 뜻하게 되었다.

削

소전

削

해서

3(2)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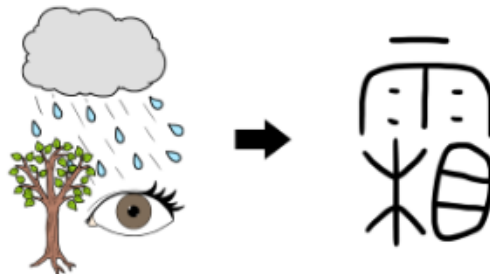
森

수풀 삼

회의문자 ①

木(목)이 셋으로 나무가 많이 나 있는 모양→무성하다(茂盛--)>으쓱함을 뜻함. 많이 있는 것은 셋 쓰는 것이 한자(漢字)를 만드는 원리(原理)임.

3(2)
-
214



형성문자 ①

霜

서리 상

霜자는 '서리'나 '흰 가루', '세월'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霜자는 雨(비 우)자와 相(서로 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相자는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霜자는 이른 새벽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붙는 현상인 '서리'를 뜻한다. 수증기가 흰 가루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흰 가루'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나는 흰 머리를 새하얀 서리에 비유하여 '세월'이나 '흰 머리카락'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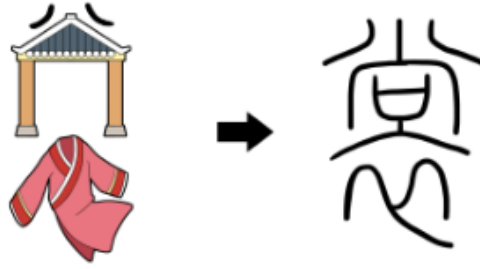
소전

霜

해서

3(2)
-
215

회의문자 ①



裳

치마 상

裳자는 '치마'나 '아랫도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裳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衣(옷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집 위에 八(여덟 팔)자를 그린 것이다. 裳자는 이렇게 집을 그린 尙자에 衣자를 결합한 것으로 '집에서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사실 소전 이전에는 常(항상 상)자가 '아랫도리'나 '집에서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항상'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裳자가 '아랫도리'를 뜻하게 되었다. 고대에는 衣자는 '상의'로 裳자는 '하의'로 구분했다. 그래서 의상(衣裳)이라고 하면 위아래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것을 뜻한다.

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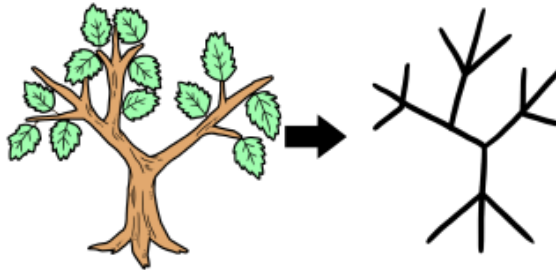
소전

裳

해서

3(2)
-
216

상형문자 ①



桑

뽕나무
상

桑자는 '뽕나무'나 '뽕잎을 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桑자는 木(나무 목)자와 叒(땅이름 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일은 예부터 농상(農桑)이라 하여 농업과 함께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었다. 오래전부터 중시했던 산업이었기 때문인지

桑자는 갑골문에서도 볼 수 있는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桑자는 나뭇잎이 뽕처럼 있는 叒 모습으로 그려져 뽕잎을 강조하고 있었다. 소전에서는 가지가 사라지고 叒자와 木자가 결합한 叒 형태로 바뀌었다. 이것은 누에에게 줄 뽕잎을 손으로 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桑

갑골문

桑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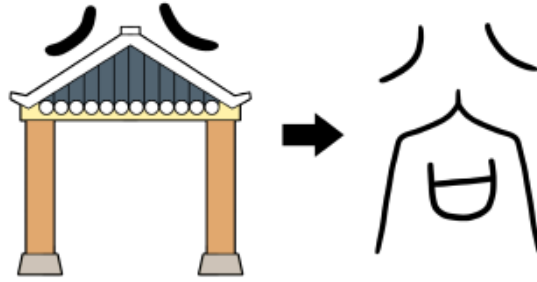
桑

해서

해서

3(2)
-
219

회의문자㉠



尙

오히려
상(·)

尙자는 '오히려'나 '더욱이', '또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尙자는 小(적을 소)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작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尙자는 八(여덟 팔)자와 向(향할 향)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尙자는 집과 창문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八자가 더해진尙자는 집 위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尙자의 본래 의미는 '증가하다'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나 '더욱이', '증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尙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집'을 뜻할 때가 많다.

尙

금문

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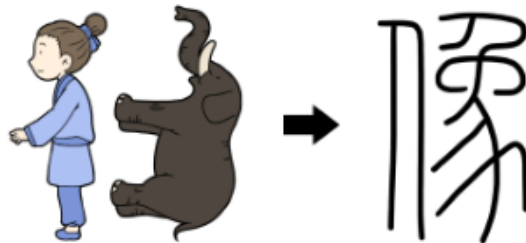
소전

尙

해서


3(2)
-
220

형성문자㉠



像

모양 상

像자는 '모양'이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像자는 人(사람 인)자와 象(코끼리 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象자는 코끼리를 본떠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하 유역까지 코끼리가 서식했었다. 은나라 때의 기후는 지금과 달리 열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코끼리의 서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부터는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후대에서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렸다 하여 '모양'이나 '형상'이라는 뜻의 像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像

소전

像

해서